피터 싱어 “자비롭다면 공장식 축산물 구매 말라”

4월 20일 동국대 초청 강연회
동물권 관련 불교, 서양 비교
“방생 사육 동물 구입 無자비
한국, 공장식 사육 너무 관대”
AI, 공장 축산 영향 화두 던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스스로 자비롭거나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장식 축산 동물로부터 생산된 고기, 달걀 혹은 유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물윤리 분야의 최고 석학으로 평가받는 피터 싱어 프린스턴대 명예교수가 조계종립 동국대 학생들에게 던진 메시지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건학 120주년을 맞아 4월 20일 본관 남산홀에서 싱어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동물에 대한 우리의 대우: 불교적 및 서양적 관점(Our Treatment of Animals: Buddhist and Western Perspectives)’을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싱어 교수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불교와 서양의 관점, 동물윤리 등에 대해 폭넓게 다뤘다. 세계 최고 석학의 강연인 만큼 이날 남산홀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로 가득 찼다.

싱어 교수는 “일체중생(一切衆生)에 대한 자비는 불교의 근본 계율”임을 분명히 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실제 〈능가경〉 ‘육식(肉食)에 관한 장’에서 부처님은 제자 대혜에게 ‘육식은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와 양립할 수 없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일체 존재에 대한 자비를 갖춘 보살은 육식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게 싱어 교수의 설명이다.

나아가 그는 고려시대 고승 대각 국사 의천이 동아시아 불교에서 채식 윤리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예시로 들며 “이는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 보살의 이상인 보편적 자비에 정초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자신의 계율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게 싱어 교수의 지적이다. 실제 그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사아 국가에서 이뤄지는 방생의 문제를 들었다.


동국대는 건학 120주년을 맞아 4월 20일 본관 남산홀에서 피터 싱어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피터 싱어 교수가 ‘동물에 대한 우리의 대우: 불교적 및 서양적 관점’을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싱어 교수는 “다친 동물을 치료한 뒤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은 자비방생”이라면서도 “그러나 방생용으로 사육된 동물을 사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며 동물을 서서히 죽게 될 환경에 놓아주는 것도 자비의 정반대 행위”라고 꼬집었다.

세계 전역에서 이뤄지는 공장식 축산 행위에 대해서도 싱어 교수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임신한 어미 돼지를 개별 칸막이에 가두어 키우는 사육 방식인 모돈 스톨(Stall)에 대해 “모돈 스톨은 영국과 유럽연합에서는 금지됐지만 한국에서는 2030년 금지될 예정이다. 그나마 임신 6주차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계란을 손쉽게 얻기 위해 만들어진 산란계 케이지 역시 “유럽연합·영국·미국의 캘리포니아는 금지하는 사육 방식이지만 한국에서 아직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식육용으로 사육되는 닭의 97.6%가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싱어 교수는 공장식 축산물 생산의 종식을 재차 강조했다. 싱어 교수는 “공장식 축산은 동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야기한다. 매년 약 2000억 마리의 척추동물이 공장식 축산에서 사육되고 도살된다”면서 “공장식 축산은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을 감소시키며,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싱어 교수는 불교의 자비와 부합되는 ‘비(非)종차별주의’를 지향할 것을 제안했다.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와 유사하게, 단지 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존재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편견을 넘어 종에 관계없이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게 싱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는 그 이익 관심이 누구의 것이든 종에 관계없이 유사한 이익 관심에 대해 동등한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AI시대가 동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화두로 던졌다. 싱어 교수는 2023년 연구서 〈인공지능 윤리: 동물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는 “자율주행차가 동물을 인식하고 멈출 수 있는가”라며 “멈춘다면 개, 고양이, 사슴, 캥거루 등 어디까지 지정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공장식 축산에 활용되는 AI는 동물복지 증진이 아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설계될 것인가”라며 “배양육은 식육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겠는가” 등의 화두를 던졌다.

피터 싱어 교수는 공리주의에 기반해 빈곤윤리와 동물윤리, 생명윤리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쌓아온 세계적 석학이다. 2005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1년에는 베르그루엔 철학상을 수상했다.

대표 저서 〈동물해방〉은 1975년 출간 이후 동물윤리 분야의 대표적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2023년에는 대만의 스자오후이 스님과 함께 〈불자와 윤리〉를 펴내며 불교와의 학술적 접점을 넓혔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삶에서 길어 올린 현장 인문학

㊴ 색즉시공(色卽是空)

色 卽 是 空

불교는 흔히 깊은 산중에서 면벽 수행하며 세상과 단절한 채 내면의 신비만을 좇는 은둔의 종교로 오해된다. 선사들의 파격적인 문답은 일상의 논리를 벗어난 초월적 유희로 여겨지고, 그들만의 폐쇄된 문법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붓다의 깨달음은 철저히 ‘현장’에서 출발했다.

당시 인도 사회는 감각적 욕망에 탐착해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삶을 소진하는 군상들과, 사성 계급이라는 견고한 모순 속에 신음하는 중생들로 가득했다. 한편으로는 현실과 경험을 외면한 채 추상적 사유로 도출한 개념을 진리라 주장하며 해탈을 말하는 사상가들이 혼란을 더했다. 싯다르타는 궁궐 안의 박제된 평화에 안주하지 않고, 동서남북의 문에서 마주한 노·병·사의 풍경을 날것 그대로의 현실로 받아들였다. 불교의 출발점은 마음의 일시적 평온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모순을 직시하고 그 연기적(緣起的) 구조를 해부하려는 치열한 ‘삶의 통찰’에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야심경〉의 핵심인 ‘색즉시공(色卽是空)’은 결코 형이상학적 추상이 아니다. ‘색(色)’을 포함한 실존의 나를 명명하는 오온(五蘊)은 태자가 목격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입고 분노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상 그 자체다. ‘제행무상(諸行無常)’과 ‘제법무아(諸法無我)’는 그에 대한 임상적 기록과도 같다.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계급이라는 허상과 영원하지 않은 욕망에 매달려 고통받는 존재들을 향한 실존적 해법이었다.

이 점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현대의 현상학과도 맞닿아 있다. 현상학이 선입견을 버리고 ‘사태 자체’로 돌아가 현상의 본질을 직시하자고 말하듯, 붓다는 삶 위에 덧씌운 ‘나’라는 환상을 걷어내고 생의 맨얼굴을 보라고 권한다.

‘색즉시공’의 논리는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붙잡고 스스로를 얽매는 모든 현상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무자성(無自性)으로서 수많은 인연이 잠시 얽혀 이루어진 ‘텅 빈 흐름’임을 밝힌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허무로 귀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기에[空],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인연 속에서 삶을 다시 빚어갈 수 있다.[色] 이때 ‘공즉시색(空卽是色)’은 부정이 아니라 생성과 가능성의 장으로 전환된다.

결국 붓다의 교설은 아수라장 같은 현실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현장인문학’이다. 붓다는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 같은 허구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왜 ‘공즉시색’이 아니라 ‘색즉시공’을 먼저 말했는지를 떠올려 보라. 붓다는 나무 아래에서 좌선했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마을의 길 위, 고통과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한복판을 향해 있었다.

〈화순 불암사 주지〉

대자유치원 기록물, 문화유산 등록

4월 16일, 기록물 8건 31점
경남도 등록문화유산 지정


현존하는 불교유치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정법사 대자유치원의 초기 기록물이 경상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대자유치원의 전신인 배달유치원의 1주년 기념사진(1928년 5월 1일).
사진 제공=경상남도

내년 개원 100주년을 앞둔 창원 정법사 대자유치원의 기록물이 경상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소장하고 있는 ‘대자유치원 기록물’ 8건 31점을 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대자유치원은 조계종 통도사 마산포교당인 정법사의 부설 유아교육기관으로, 현존하는 불교유치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이번에 등록된 기록물은 1927년 개원부터 1945년대까지의 원아 모집과 학사 운영, 활동 모습 등이 상세히 담긴 자료다. 입원 원서철과 졸업생 명부, 학사 보고철, 졸업앨범, 개원 기념사진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록물은 근현대 유아교육사 연구는 물론, 당시 마산지역의 생활사와 시대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존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영철 경남도 문화체육국장은 “대자유치원 기록물은 지역사회가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라며 “우수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 및 소유자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6월10일 출발~14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5월 27일 출발~6월 2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6월04일 출발~6월1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6월18일 출발~6월22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279만원

인도 관광여행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잔시고성-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